



16면

“서해안 중심도시 실현해 나갈 것”

2022년 7월 25일 월요일 (음 6월 27일) 제306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지역산업 육성 결실 맺다

도, 중기부 평가서 전국 14개 광역지자체 중 ‘최우수’ 신규고용 303명 · 사업화 매출액 1128억 목표 초과 달성 총 22억원 인센티브 확보... 4대 주력산업 예산으로 사용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1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 및 2022년도 지역산업육성사업계획 평가에서 전국 14개 광역지자체 중 성과 각각 최우수(S등급), 계획 우수(A등급)를 받았다. 이에 총 22억원의 추가 인센티브도 확보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전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1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역산업육성 성과의 우수사례가 된 (주)휴먼컴퍼티트

지역산업육성사업은 지역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시군구 연고산업기업지원 등 기술개발(R&D) 및 기업지원(R&D) 사업이 해당된다. 이번 평가 결과는 2018년 최우수(S등급)를 획득한 이후 4년 만에 얻은 최고 성과다. 도와 지역혁신기관인 (재)전북테크노파크,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이 협력해 지역 산업의 생태계 분석 및 기업 성과의 면밀한 관리 등을 통해 이뤄낸 결과다. 전북도는 지난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화 매출액은 1,128억원, 신규고용 303명으로 목표 대비 각각 187%, 140% 초과 달성해 평가위원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성공우수사례로는 △화재 발생 시 비상탈출용 승강기 관련 기술 확보 및 제품 개발·판매로 급성장한 (주)담돌, △중형 트랙터 스티어링 부품 관련 우수특허를 등록하고, 국산화 개발과 함께 수요처 납품으로 매출 신장 및 6명의 신규고용을 달성한 율천공업(주)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일본 현지 시장진출을 위한 노력으로 스마트 스쿠터를 수출하고 있는 (주)한호기술

등의 사례가 발굴됐다.

우수사례사례로는 △지역특화산업육성(R&D)사업 참여를 통해 UV기반 구급차용 스포일러 상용화 개발로 사업분야를 확대하고, 3명의 지역인력 신규고용이 발생한 (주)휴먼컴퍼티트, △지역특화산업육성(R&D) 기업지원 사업으로 지역의 농생명소재·식품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혜기업들의 고용인원 88명 증가와 사업화 매출액 16억원을 창출한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사례가 발굴됐다.

아울러 전북도는 확보한 22억의 인센티브를 4대 주력산업인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산업의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대식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이번 성과평가 결과는 어려운 산업·경제 여건 속에서도 혁신적 기업경영을 통해 고용확대와 매출 증대 등을 이뤄낸 지역의 우수한 기업과 함께 맞춤형 기업지원과 세심한 관리를 추진한 지역혁신기관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면서,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도내 기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다양한 우수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지난 23일 무주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열린 제15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에 참석한 김관영 도지사(2줄째 오른쪽)와 서거석 교육감, 외국인 선수단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태권문화엑스포, 무주 태권도원서 ‘팡파르’ ‘평화의 소중함, 세계인에 널리’

북한·우크라이나 포함 18개국 2270명 참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대비 방역대책 마련도 김관영 도지사 “전북의 문화·정신 깊이 알릴 것”

세계 태권도인의 화합의 축제, 제 15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가 태권도 성지인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2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태권도 엑스포는 해외 참가자 156명을 포함해 18개국 2270명이 참가해 겨루기, 품새 등 태권도 경연과 태권도 세미나, 문화탐방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는 코로나19로 3년만에 개최되는 행사로 일반인을 포함한 전세계 태권도인의 축제의 장으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미국 망명길에 오른 북한 출신 선수 1명과 전쟁

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 선수 3명이 참가해 소통과 화합, 더 나아가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직위원회를 비롯한 대회 관계자들은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해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따른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해외 입국자들은 무주군 보건소 의료원의 협조로 전원 PCR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증상 발견 즉시 신속한 원검사 실시, 확진자 발생을 대비해 별도 격리 장소를 운영하고, 대회 기간 동안 전 참가자에게 마스크 쓰기, 열체크,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당부하는 등 철저한 방역 준비를 했다.

이번 엑스포는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태권도 사관학교의 설립을 위한 홍보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북도는 김관영 지사를 중심으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에 필요한 타당성연구 용역비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일 국회와 중앙정부를 오가며 핵심관계자들을 만나 예산확보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이번 엑스포 개최로 세계 태권도인들의 이익이 무주에 집중돼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기관 설립에 필요한 예산이 최종 정부예산안에 반영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회식에 참석한 김관영 도지사는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행사를 준비한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세계인이 사랑하는 태권도를 통해 전북의 문화와 정신을 깊이,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무주=전문선 기자

1300억원 규모 쿠팡 물류단지 조성 무산

완주군, 토지조성 공사 비용 올라 분양가 올려 제시... 쿠팡측 거절 의견 일지 보이지 못해 백지화... 군 “다른 기업 유치토록 최선”

민선8기 시작부터 2024년까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에 10만㎡ 규모로 짓기로 했던 1300억 규모의 쿠팡 물류단지가 백지화됐다.

쿠팡 물류센터의 백지화는 토지 분양가 문제로 인한 완주군과 쿠팡의 대립 끝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채 발생한 것.

2021년 합의된 평당 64만5,000원의 토지 분양가를 완주군이 그동안 토지

조성 공사 비용이 올랐으며, 최근 평당 83만5,000원으로 가격을 올려 제시했고 약 50억원의 비용을 더 들여야 하는 쿠팡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간에선 1,300억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이 약 50억원 때문에 전면 백지화가 됐으며,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쿠팡측에 제시된 64만원 상

당의 토지분양가가 2016년도에 측정된 가격을 제시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어 MOU 단계부터 적절한 가격을 측정하지 않은 완주군의 안일한 진행방식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테크노밸리 산단 조성을 하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 협약 때보다 높은 분양가를 제시하게 됐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쿠팡이 들어오기로 돼 있던 물류용지에 다른 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